

# Newsletter **느헤미야**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 **화투볼 모임**

2월 22일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독서모임.  
3월 22일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으로 독서모임.  
4월 26일  
대학로에서 맛있는 식사 후 연극관람.

● **신학연구과정 1기 졸업식**

2월 11일 느헤미야 연구생들의 첫 번째 졸업식을 하.나.의.교회에서 거행했습니다. 강도영, 김경모, 김민수, 배태욱, 유희창, 이길승, 장진세, 한상은 학우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히브리어 기초강좌**

2월 20-24일 박유미 교수의 히브리어 기초강좌를 진행했습니다.

● **연구과정 개강 수련회**

2월 27-28일 은평 팀비전수양관에서 연구과정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개강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 **1학기 개강**

2월 28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느헤미야 전과정(서울 대전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을 개강하였습니다.

● **팟캐스트 채널 <느헤미야>**

배근원의 에고에이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 <위기의 기독교 세계관?>, <탄핵 그리고 세습>  
와일드 카드: 영화속으로  
<히든 피거스>, 아카데미 시상식, <사일런스>, 드니 빌뇌브 감독, <더 킹>, <패션저스>, <바베트의 만찬>, <판도라>  
북케미아  
<소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김근주 연구위원>,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네 지라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 이원석 작가>, <서평 쓰는 법 - 이원석 작가>

P1-P3 **교수칼럼**

김동춘 전임연구위원의  
교회, 하나님의 사회

P4-P5 **느헤미안 스토리**

송덕무 형제(심화과정)의  
기독교 입문과정을 마치고

P6-P8 **이스라엘 답사 여행후기**

조선미 자매(목회학 연구과정 1년)의  
예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 교회, 하나님의 사회

김동춘 전문연구위원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이해한다. 특별히 교회를 영적인 차원의 구원기관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 곳이며, 인간 내면의 영적이며, 사적인 영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더 진실보한 관점은 교회를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교회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교회가 수행할 두 가지 사명에 속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저 무난한 수준에서 활용되어왔던 ‘균형잡힌 기독교’(존 스토트)라는 관점을 넘어서려고 한다. 왜냐하면 총체적 관점에 따르면, 기독교의 구원은 영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whole salvation)이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온전한 선교(whole mission)는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교와 실천의 철저함보다 적당주의를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교회는 단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총합(總合)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사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교회란 그저 사회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의 ‘사회’이며, 그것도 기존사회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대안사회’(alternative society)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로서 교회’(church as society)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라는 생각을 삼위일체 교리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분으로 이루어진 신적 사회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사회’요, ‘사회적 삼위일체’로 계시는 사회적 하나님(social God)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으로, 그리고 사림과 친교 안에 계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God as community)이 아닌 다른 분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림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이 온전하게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회(society of God)다. 교회는 사회적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앉은 장소다. 그



리므로 교회는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회적 실재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가시적으로 구현된 그리스도의 현존(現存)이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God’s New Society)로서 교회를 설립하신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회적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회적 기획(project)은 그 분의 창조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회적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인간을 고독과 홀로 있음이 아니라 ‘더불어 있음’(togetherness)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본질은 ‘사회성’(sociality)에 있다. 그러나 죄의 침입으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근원적 친교와, 동료인간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다. 죄가 초래한 타락은 하나님께서 설립하고자 하신 그의 나라, 곧 사회-경제-생태적 차원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다스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타락이 초래한 비참이란 영적인 비참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참(불의, 폭력, 불균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구원의지는 죄와 악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창조질서를 갱신함으로써 새 창조의 사회를 복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기획이다.

하나님의 사회적 기획(企劃)은 성경의 대표적인 구속모델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 더 명료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출애굽 해방을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회였다.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비전은 “억압과 착취의 정치에 기반한 파라오의 사회적 세계”를 붕괴시키고, “정의와 공흥의 정치를 내세운 하나님의 자유의 대안종교”였다. 그런데 “출애굽으로 이루어진 현실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라든가 새로운 종교 관념 또는 자유에의 비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서, 이 공동체는 역사적인 조직을 갖추고 법을 제정하고 통치와 질서의 형태, 선과 악의 규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제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유라는 비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그 사회는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현실로서 이스라엘 고유의 대안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회였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의 백성과는 구별된 사회적 존재방식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했다. 토라 법에 따라 그들은 제의방식에서, 먹는 방식에서 그리고 농사짓는 방식과 정결법에서, 그리고 노예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타국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과의 관계방식에서 제국적 사회질서와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그것의 완결판으로서 희년사회-희년은 시간적 순환이면서 경제적 순환으로서 사실은 삼위일체의 사회적 순환의 가시적 실현이다-는 이스라엘이 도달해야 할 대안적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었다.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 다시 말해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목표도 '성경적 실재론' 혹은 '사회실재론'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구원의 목표는 단지 영혼구원이나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면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비전, 즉 전적으로 다른 존재방식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의 설립이었다. 톰 라이트는 복음과 구원의 목표는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과 변화"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천국-지옥 구도'가 아니라, 복음이 삶의 방식과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 현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복음은 기존사회의 옛 질서에 맞대응하여 '새롭고 다른 사회적 실재'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복음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복음에 합치된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복음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나그네 된 백성이 되고, 대항문화 사건에 참여하고, 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리스(polis)에 가입하라는 신나는 초청이다."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새로운 사회의 윤리, 즉 세상질서와 구별된 대조·대비의 윤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며, 성령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따라 현존하는 기존질서와 문화를 거스르는 대항사회요, 대조사회인 것이다. ■■



## 기독교 입문과정을 마치고

송덕무 심화과정



안녕하세요. 기독교입문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송덕무입니다. 2년 전 직장에서 만난 어린양 교회 금기옥 목사님을 통해 느헤미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셔서 1년 코스 과정이지만 2년간에 걸쳐 마무리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호세아 6:1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처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듯 하나님을 알아 가고 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연경 교수님의 <행위 없는 구원>에서는,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 한 번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변치 않는다고 알아 왔는데 어릴 적 신앙상태에서는 위로가 되었지만 계속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였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으로 갈등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배덕만 교수님께는 <교회 역사 이야기>를 배웠는데 특히 종교개혁부분에서는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하여 금년 개혁 500주년을 맞는 마틴 루터까지 배우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을 이곳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형원 교수님의 <하나님과 그의 세상> 수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의 <구약 이야기>에서는 성경을 읽는 자세와 기대, 성경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이 창조와 같은 과거의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이면서 현재에 언제나 새롭게 적용되고 회복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벗어나고 변화되어야 할 애굽의 실상이며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통치 가운데로 나가는 것 곧 출애굽이라는 사실은 바로 오늘 저에게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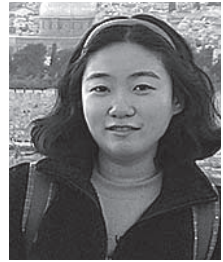
김동춘 교수님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조석민 교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예전의 삶을 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정신과 가치가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료를 앞두고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오감으로 성경읽기』의 저자이신 김동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학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현장학습으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 저로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마치 유치원 과정을 수료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 마음처럼 심화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문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삶의 호흡이요, 소망이요,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마치고 올 때면 때로는 피곤하였다가도 저녁에 헌신하여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열정과 배우는 동료 학우들의 열기에 힘을 얻었고, 궁금한 문제점들을 해결 받고 집에 돌아갈 때면 가볍고 뿌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입문 과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 예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조선미 목회학 연구과정 1년



지난 1월 저는 8박 9일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종단하는 답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념교회’들만 찍고 다니는 흔한 성지순례가 아니라 오감으로 이스라엘을 느끼며 예수님 시대를 그려보는 과거로의 답사 여행이었습니다. 덕분에 보고 느낀 것도 참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같이 갔던 팀원들 모두가 ‘분리장벽’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의 셋째 날이었던 28일은 한국의 설이었고 저희는 베들레헴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괜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날의 첫 일정이었던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했을 때까지도 저는 그런 감동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는 지금도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려진 지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엄숙히 묵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정확도를 떠나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기에 더 좋은 장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 팀의 오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옆 동네였지만 저희는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착지이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분리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동네와 저 동네 사이에 그 분리장벽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조금 이동하니 분리장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던 분리장벽은 더 없이 높은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올려다본 벽 위에는 또다시 철조망이 둘러 있었고 ‘절대 벽을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소리 없이 울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벽은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장 관계를 정말 잘 몰랐던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벽을 두르고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 누가 누구를 가두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글들과 벽화들을 보고서야 이 벽이 누구를 가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벽을 분리 장벽이 아니라 '보호 장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두른 벽에 자신들이 갇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분리 장벽을 통과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입국하듯이 짐 검사를 하고 여권과 비자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검색대까지 가는 길은 어둡고 차가운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되어 있어서 마치 동물 우리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낮선 상황에 긴장하고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왠지 불쾌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는 매일 같이 이 길을 오고 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과정을 겪으며 출근할 때마다 가방을 풀고, 허리띠를 풀고 검문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분리 장벽'이고 누군가에게는 '보호 장벽'인 그 벽을 통과해 나와서야 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 다니셨을 그 길들을 걸으면서도 이제는 그것이 그리 감동적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도 안쪽으로 더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벽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통곡의 벽. 구약시대 성전들이 다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았다는 성전 서쪽 벽(Western Wall) 앞에서 안식일을 맞아 많은 유대인이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앞에도 또





다시 남녀를 구별하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벽 앞으로 조심하다가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예수 탄생 교회에서 드렸던 기도와는 아주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평화의 왕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그런 모든 구별과 차별을 허무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나고 돌아가셨던 지금 여기 베들레헬과 예루살렘 사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분리와 차별이 눈에 보이는 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보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곳에서 예수를 기리고 기억할 순 있겠지만,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기도는 감동과 감사에서 슬픔과 탄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저는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구별과 차별의 벽을 허무시기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길을 걸어 다니셨을지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스라엘일 뿐 오늘날의 이스라엘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별과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과 총을 들고 자신들이 차지한 성지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 분리장벽과 함께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분리장벽의 안쪽일지 바깥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편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



#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 2017년 1월~3월

## 개인 후원 (정기/일시불)

강경숙, 강경태, 강내은, 강도영, 강민혁, 강병일, 강복인, 강선희, 강상태, 강수연, 강신만, 강신영, 강인성, 강일성, 강진규, 강화춘, 고광덕, 고미혜, 고상환, 고용주, 고윤길, 고인환, 고재광, 고현정, 공경표, 공성희, 공영찬, 광명화, 객신재, 객은이, 구동원, 구분준, 구자욱, 구지혜, 권두현, 권명재, 권미순, 권민정, 권성호, 권영오, 권영우, 권현아, 권현진, 기용서, 기호은, 김진철, 김강산, 김경란, 김경모, 김광수, 김구성, 김구원, 김규동, 김규진, 김근주, 김기영, 김기창, 김기현, 김난희, 김남호, 김대근, 김대원, 김대원, 김대인, 김도선, 김동국, 김동근, 김동식, 김동훈, 김래산, 김미덕, 김미정, 김미정B, 김민석,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병래, 김사원,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석훈, 김선, 김선태, 김선호,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학, 김세우, 김세준, 김소희, 김수미, 김수희, 김순웅, 김신덕, 김신환, 김아름, 김아주, 김양철, 김영구, 김영국, 김영기, 김영삼, 김영석, 김영준, 김영진, 김예성, 김요한, 김용문, 김용순, 김우빈, 김우라, 김유성,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별, 김은성, 김은애, 김은진, 김은향, 김은혜, 김은혜, 김인성, 김인수, 김재신, 김장길, 김정은B, 김정은A, 김정현A, 김정현B, 김중욱, 김중철, 김중철, 김중현, 김주서, 김준수A, 김준수B, 김준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환, 김진미, 김진선, 김진수, 김진하, 김진협, 김진희, 김철휘, 김태민, 김태열, 김태윤, 김태환, 김판재, 김하양, 김하영, 김하윤, 김현규, 김현성, 김현수, 김현실, 김현주, 김형규A, 김형규B, 김형원, 김혜연, 김홍근, 김소희, 김홍성, 김희범, 김희정, 나다아, 나정수, 나종삼, 남기항, 남미영, 남백희, 남성철, 남소희, 남철, 노민규, 노항림,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문기순, 문명관, 문봉국, 문인배, 문창호, 문형욱, 문효빈, 문희은, 민경인, 민은경, 민은주, 민지영, 박건영, 박국미, 박근호, 박국음, 박금자, 박기웅, 박두진, 박미경, 박민연, 박미향, 박민규, 박민규, 박민서, 박민우, 박병만, 박보은, 박선미, 박성민, 박성숙, 박성준, 박세훈, 박소영, 박순창,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영희, 박은정, 박재외, 박정수, 박정숙, 박종선, 박지연, 박지호, 박진철, 박진호, 박한배, 박한성, 박형준A, 박형준B, 박혜원, 박혜정, 박훈용, 방성희, 배덕만,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용하, 배운기, 배진호, 배태욱, 배한나, 배효진, 백민정, 백병환, 백순철, 백승훈, 백용진, 백종환, 백중원,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석은진,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손주희, 손정근, 손태훈, 송경근, 송경아, 송덕무, 송병배, 송아진, 송창달, 송현미, 신동준, 신동철, 신범준, 신선영, 신소은, 신승철, 신지현, 신지호, 신현오, 신현주, 신금관, 심재용, 심해인, 안경미, 안광희, 안병환, 안세주, 안영석, 안윤희, 안재영, 양미라, 양지영, 양희수, 엄진용, 엄태진, 여경애, 여신애, 오경준, 오규애, 오수경, 오숙현, 오인성, 오정희,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옥금희, 옥명희, 온상원, 왕정수, 우석윤, 우재형, 우종학, 원근페리, 유기백, 유경원, 유계상, 유명중, 유이신,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술, 유수경, 유수진, 유영백, 유영성, 유욱, 유인환, 유재경, 유재미, 유지은, 유지희, 유진하, 유창현, 유호영, 유희창, 윤기원, 윤대영, 윤미자, 윤민구, 윤선민, 윤성윤, 윤성윤, 윤수일, 윤준택, 윤진아, 윤희정, 이강산, 이간, 이경미, 이경직, 이경향, 이관영, 이귀영, 이규복, 이근우, 이기척, 이기호, 이길승, 이도현, 이등주, 이동환, 이로운, 이명숙, 이명희, 이미경, 이미순, 이미영, 이민정, 이방욱, 이백, 이병구, 이병선, 이병욱, 이보람, 이상원, 이상준, 이상진, 이상찬, 이상호, 이상재, 이상동, 이상영, 이상용, 이세순, 이소연, 이수미, 이수범, 이수연, 이수연B, 이수정, 이순조, 이승민A, 이승민B, 이신석, 이양현, 이연우, 이영애, 이영주, 이예림, 이원수, 이원근, 이원혁, 이윤정, 이윤희, 이은재, 이은혜, 이일수, 이장은, 이재수, 이재욱, 이재원, 이재은, 이정락,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종민, 이주, 이주연, 이준승, 이준우, 이종림, 이지연, 이지영A, 이지영B, 이지현, 이진숙, 이진형,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태권, 이현일, 이현주, 이향숙, 이현아, 이현재, 이현창, 이형석, 이혜원, 이호태, 이희석, 이희욱, 임도훈, 임명숙, 임민, 임민선, 임석환, 임선재, 임소숙, 임아영, 임옥희, 임재천, 임정우, 임종화, 임철호, 임흥희, 임혜진, 임희수, 장건세, 장경숙, 장명우, 장상순, 장새미, 장영균, 장우도, 장운석, 장의신, 장인숙, 장재원, 장재원, 장진혁,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남식, 전미경, 전세원, 전재원, 전준환, 정가영, 정경아, 정국진, 정기해, 정누가, 정라함, 정명숙, 정미현, 정석구, 정여임, 정영희, 정용민, 정원순, 정윤성,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지은, 정지은, 정진용, 정찬형, 정재영, 정철구, 정택인, 정하나, 정한우, 정해국, 정혜정, 정혜은, 정훈배, 정희진, 정훈재,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두용, 조신미, 조성모, 조성영, 조성호, 조수정, 조순재, 조영민, 조영욱, 조원규, 조은아, 조은주, 조주현, 조혜숙, 조혜정, 조희준, 주동재, 주현우, 지산, 지성학, 진현자, 차미나, 차정호, 차지훈, 채미숙, 채미혜, 채성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천성광, 천재성, 최경숙, 최경아, 최경진, 최동국, 최미근, 최성호, 최소영, 최수빈, 최수진A, 최수진B, 최영성, 최영선, 최영준A, 최영준B, 최영희, 최용주, 최원규, 최윤호, 최윤호, 최은진, 최은주, 최은혜, 최인성,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종원, 최진규, 최진영, 최혁순, 최현복, 최황덕, 추은총, 허규하, 허상호, 허태근,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미원, 한부홍, 한삼은, 한성혜, 한솔, 한승희, 한승환, 한유진, 한은희, 한인혜(유대호), 한지희, 한지혜, 한혜원, 함병식, 함진호, 함진화, 허성호, 허진석, 허현구, 현지윤, 황승민, 황정인, 호욱, 홍소라, 홍영미, 홍인경, 홍준호, 홍지수, 홍창용, 황기영, 황남주, 황신진, 황성관, 황성주, 황인돈, 황정환, 황준영, 황현주, 황혜정

무명, 배효진, 유지희, 이윤희, 이주연, 임재연, 전갑수, 전계명, 정혜식, 조상우, 조석문, 조석민, 한부홍

## 교회 및 단체 후원

100주년 기념교회, ENM선교회, 개포동교회, 광고산울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들목교회, 동인선교회, 백향나무교회, 사곡의 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새마을교회, 신바람ळे게어, 어울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영동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말개그놀이교회, 주사랑교회, 진명해피게어, 천구교회, 하나.의교회, 하나꿈한빛누리, 하나님나눔터, 한그루교회

## 특정목적 후원

강경민(신학연구과정졸업식), 김성학(청소년캠프), 김정태(청소년캠프), 무명\*2, 유민현(청소년캠프), 유지희(청소년캠프), 정철규(신학연구과정졸업식), 정현규(청소년캠프), 최민아(청소년캠프), 최윤희(청소년사역), 프락시스(강소대여), 홍영주(청소년캠프), 화춧불(기독교교민, 심화졸업식)

운영성과표			
계정과목	1월-3월	계정과목	1월-3월
사업수익	95,376,308	사업비용	101,693,841
후원금	65,395,880	사업운영비	32,185,069
일반후원금	58,045,880	사업인건비	16,290,000
특정후원금	7,350,000	사업진행비	12,028,469
사업수입	29,974,000	사업홍보비	1,766,600
수강료수입	29,974,000	수업료지원비	2,100,000
사업수입	9,054,000	관리운영비	69,508,772
기타수입	6,428	인건비	33,738,950
기타수입	6,428	사무관리비	35,769,822
<b>계정과목</b>		<b>-6317533</b>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유동자산	35,222,407
당좌자산	35,222,407
비유동자산	99,263,043
투자자산	8,307,349
유형자산	50,955,694
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b>자산총계</b>	<b>134,485,450</b>
부채	
유동부채	100,000
<b>부채총계</b>	<b>100,000</b>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32,940,450
<b>순자산총계</b>	<b>134,385,450</b>
<b>부채외순자산총계</b>	<b>134,485,450</b>

## 연구위원 후원

강재희, 고선숙, 권연경, 김동국, 김보람, 김은형, 김민철, 김창식, 김혜선, 민경일, 동예림,

# \*느헤미야의 소식\*

## \*일정과 알림

- 정승훈 교수(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초청 신학특강 및 사전 집담회 (5월 1일)  
주제 : 바빙크와 바르트: 개혁신학을 위한 공동유산  
장소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시간 : 오후 4시 - 6시 정승훈 교수와의 대화  
저녁 7시 - 9시 30분 신학 특강

- 전과정 독서주간 (5월 1~6일)
- 신학전문과정 중강 (5월 29일)
- 기독교학 입문과정 중강 (5월 30일, 6월 1일)
- 기독교학심화과정 중강 (6월 13일)
- 신학연구과정 중강 (6월 13~15일)
- 정의와 정의의 학술포럼 / 청년대학생 신학캠프 (예정)



## \*인사와 동향

- 김동춘 교수(조직신학/윤리) : 전임연구위원 부임 (3월1일부)
- 김근주 교수(구약학) :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성서유니온) 출판

## \*기도와 동역

1. 느헤미야교회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나라 위해 일하게 하소서.
2. 느헤미야 후원자들의 후원금 증액과 새로운 후원자 발굴이 일어나게 하소서.
3. 김동춘 교수님이 전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지켜주소서.
4.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이 남은 기간도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배운 바를 잘 실천하게 하소서.
5.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 \*편집부 알림

뉴스레터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좋은 글이나 소감, 그리고 알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소가 바뀐 후원자들은 사무처 강화춘 간사(070-8260-0208)에게 연락주시거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7 성서한국 전국대회 2017.8.2(수)-8월 5일(토)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건양대학교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열립니다. 김형원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참여합니다.

“느헤미야를 후원하세요.”

- 정기 후원 자동이체후원 신청 [www.nics.or.kr/funding](http://www.nics.or.kr/funding)
-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 청소년사역 후원 농협 351-0908-7177-63
-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



#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소개합니다.

2017년 4월 8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창립예배 및 창립총회가 거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기독교의 재구성을 추구하고 회원과 교회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학연구 및 지원, 목사 안수와 진로지원 그리고 회원 간 연합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17개 회원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느헤미야 연구위원과 약간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목회학 연구과정 1회 졸업생들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회장으로 전남식 목사, 배덕만 목사, 한명섭 집사가 함께하며, 강영민 이사장과 박덕훈 목사가 고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동역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후원자들의 후원금 증액과 새로운 후원자 발굴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후원자들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개미 같은 소액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이고 무리 없이 운영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김동춘 교수님이 전임으로 오시고 김형원 교수님 또한 전임과 같은 시간을 투자하며 교육과 연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춘 간사님을 재정담당 파트타임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1층 연구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적자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작년 이월된 재정이 있어 당장은 적자가 아니지만, 올해 말경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존 후원자들은 현재 후원금에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형편에 따라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단체에서 이 일에 동참할 새 후원자를 발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증액 및 후원 문의는 070-8206-0208 (강화춘 간사)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 발행인 김형원 ● 편집인 고상환 ● 편집부 고상환 광명화 ● 발행일 2017년 4월 12일
- T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M nics@nics.or.kr Podcast 채널느헤미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www.nics.or.kr](http://www.nics.or.kr)